

고령화 전남, 진료비·병원 내원 일수 '전국 최다'

월 평균 진료비 23만원... 2.3일 병원 찾아 간암·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수도 '최고' '의료 취약지' 많아 제때 치료 못 받은 탓



전남 주민들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병원 수요가 몰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를 내고, 가장 오랫동안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31일 '2021년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전남은 월 평균 진료비와 병원 내원 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보에 따르면 전남의 월 평균 진료비는 23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진료비는 월 17만 8000원 수준이었으며, 광주 또한 18만 8000원에 그친 데 비해 전남 주민들은 이보다 20~30%가량 많은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전남의 월 평균 병원 내원 일수 또한 2.3일로 전국 최장기간을 기록했는데, 전국 평균 1.8일 및 광주 1.89일에 비해 0.5일 가량 길었다.

전남은 의료보장인구 10만명당 암 환자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인구 10만명당 간암 환자 수는 256명, 폐

암 환자 수는 315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위암 환자 수는 393명으로 전북 401명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각종 만성질환 환자 수 비율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었다.

전남의 당뇨병 환자 수는 9194명으로, 강원도(8788명)를 제치고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관절염 환자 수도 1만 8151명, 전염병 환자 수도 2만 2306명을 기록하며 전국 1위에 자리잡았다.

고혈압 환자 수는 1만 7259명으로 강원도(1만 8300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정신질환 환자 수도 9232명으로 전북(9508명) 뒤를 이어 2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전남에 의료기관 수는 한정적인 데 비해 노인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환자 수도 많은 점, 섬·벽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취약지역'이 많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은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공단 지역분부는 최근 유관기관과 함께 '정말 좋은 혈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업에는 전남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광주전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전남대병원), 전남도 보건진료소, 광주보건대학교 등이 동참했다.

공단은 올해 처음으로 광주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와 함께 곡성군 겸면의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50여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법,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운영된다.

또 고흥군 등 14개 시·군을 찾아가 지역민 775명에게 치매예방 및 건강관리 용품을 지원했으며, 오는 12월까지 노래교실, 실버댄스, 저염 요리교실 등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최육용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지역자원 간 원활한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며 "전남지역민이 효과적인 개인별 질환 관리와 생활습관을 개선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하얗게 피어난 소금 염부가 31일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에서 '대패질'을 하며 하얗게 피어난 소금을 수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고려인마을, 인구 소멸 위기 극복 성지 됐다

2001년 친인척 기반으로 마을 형성 후 5천여명 거주

전국 지자체 방문...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등 논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광주 고려인마을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꼽혀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31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 고려인마을을 방문한 국내외 기관은 총 300여 곳에 달했다. 관계자 3100여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 고려인마을을 방문하는 지자체들은 전남 22개 시·군 뿐 아니라 전국의 광역 지자체까지 다양했다. 또 독일 라인란트 지방 한인회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 미주 한인회 등 외국계 동포

들도 고려인마을을 찾았다.

2001년부터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 친인척을 기반으로 한 고려인들이 모여 형성된 광주 고려인마을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5000여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인마을에 모인 고려인들은 광주의 산업단지 농촌에서 일하며 일자리를 얻고 광주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자체들은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꾸준히 인구를 늘리고 있는 고려인마을을 벤치마

킹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손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려인마을 관계자들을 찾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각각의 지자체로 수용해 산업단지 및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고려인마을 관계자들은 비자 문제와 통역, 문화와 커뮤니티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필수라고 지자체에 설명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광주 고려인마을은 친인척들로 시작된 마을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광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1석2조의 방법을 고민해왔다"며 "세계적인 마을공동체 '광주고려인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

광주 장애인 콜택시 '새빛콜' 전남까지 달린다

오늘부터 시외 확대 시범 운행

광주지역 장애인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새빛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문제(2022년 4월 20일자 광주일보 6면)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1일부터 새빛콜을 시외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는 지난달 19일 시행된 국토교통

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도 새빛콜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행범위도 인접한 시·군과 전남(도서지역 제외) 전역으로 확대하는 시범운행을 실시하게 됐다.

시범운행으로 광주에서 시외로 이동하는 새빛콜은 평일에는 하루 5회, 주말 및 공휴일은 2회씩

운영된다. 시외이동의 경우 하루전 선착순 예약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을 원하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약해야 한다.

예약이 되면 오전 6시 30분, 오전 8시 30분,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30분, 오후 3시, 오후 7시에 새빛콜을 타고 목적지로 출발하게 된다. 운행요금은 기존에 이용했던 미터기 요금과 동일하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광주에서 시외로 편도만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로 복귀하려는 경우 전남광역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그 지역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장윤영 기자 zzang@

순천 왕지2지구 정원초교 2027년 개교

교육부 심의 최종 통과

전남도교육청은 순천 왕지2지구에 추진 중인 순천정원초등학교(가칭)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순천 왕지2지구 및 조례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했다.

왕지2 지구는 2019세대가 내년 11월부터 입주할 예정이어서 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신설이 지연될 경우 이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됐으나, 학교 신설안 승인으로 개발지구 내 학생 통학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순천정원초등학교는 왕지2지구 내 1만5000㎡ 부지에 총사업비 562억원을 들여 초등 25학급, 병설유치원 2학급 규모로 신설된다. 2027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적기에 개교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